

보도시점 2024. 10. 16.(수) 배포 2024. 10. 16.(수)

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16일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 2차 점검

- 숙박·교통·주차·안전 등 인프라 포함 기업전시관 돌며 꼼꼼히 살펴
- 프로그램 운영 사전점검 및 운영상황실 방문해 빈틈없는 준비 당부
-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해 격려...봉사자들 “성공 개최 돕겠다” 다짐

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(10.22~24.)를 일주일 앞둔 10월16일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의 대회장을 찾아 현장 재점검을 진행했다.
 - 이 청장은 이날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호텔의 시설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대회의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, 진수당, 대운동장, 실내체육관 등을 차례로 돌아봤다.
 - 특히 대회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업전시관에서는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력, 공조, 소방 등 인프라와 안전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.
- 9월에 이은 2차 현장 점검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됐다.
 - 이 청장은 “대회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라북도, 전주시 등 공동 주관기관과 함께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- 이 청장은 앞서 전날 전북대 진수당에서 문을 연 관계기관 합동 상황실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.

○ 상황실은 대회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대회의 컨트롤타워로서 시설·인프라, 교통·주차,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이날 오후에는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, 우범기 전주시장, 고영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도 개최됐다.

○ 이 청장은 발대식 격려사에서 “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환대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”이라며 “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”고 당부했다.

○ 이에 공식 행사, 기업전시, 수출 상담, 수송지원, 운영지원 등 11개 분야에서 활동할 1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“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 돕겠다”는 각오를 펼쳐 보였다.

□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,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다. 끝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 | 책임자 | 과 장 이 경 아 | 032-585-3220 |
| |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| 책임자 | 사무관 황 인 용 | 032-585-3293 |
| | 전북특별자치도청 | 책임자 | 사무국장 한 승 룡 | 063-280-4950 |
| | 세계한인비즈니스 전북사무국 | 담당자 | 기획운영팀장 이 광 수 | 063-280-4955 |